

온전한 나로 서 있기 어려운 망망대해에서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제시

동방과 서방을 잇는 세계 중추신경제



이오덕의 글쓰기
이오덕 지음

“글이란 단순히 글자라는 부호를 집합시켜 놓은 것이 아니다. 글은 사람의 생각, 정신을 나타낸다. 글은 곧 길(진리)이다. 그리고 보니 ‘글’과 ‘길’은 묘하게도 닮았다. 가운데의 홀소리 하나가 다를 뿐이다. 글을 가르치는 것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친다고 하지 않고 보여 준다라고 해도 좋고, 길을 가도록 도와준다라고 했다. 어쨌든 글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현대는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 아니 글을 써야 하는 시대. 자기 피일을 넘어 생존의 방편으로서 글쓰기가 지닌 무게는 간단치 않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말과 글이 다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며, ‘글=문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은 아름답고 멋진 문장으로 쓰야 한다고 배워온 터라 글쓰기를 할 때면

한없이 작아지게 된다.

과연 글이란 그런 것일까? 이오덕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닫게 된 글쓰기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이오덕의 글쓰기’는 글이란 숨을 쉬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기 말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이오덕의 글쓰기는 온전한 나로 서 있기 어려운 망망대해에서 스스로를 찾고,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글쓰기 교육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보고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다룬 글들을 모았다. 2장은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방법을 풀이한 글들을 수록했다.

3장과 4장은 아이들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본 글들을 모아놓았고, 5장은 참된 글쓰기 교육의 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이론이나 지도 방법들을 비판한 글들이 담겨 있다.

저자의 생각은 간명하면서도 명확하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글로 써서, 그 마음과 몸이 산과 들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눈부시게 피어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철북출판사·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실크로드 세계사

피터 프랭코판 지음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지역을 일컫을까?

“그 길을 따라 순례자와 전사(戰士), 유목민과 장사꾼들이 여행하고, 먼 곳에서 온 물건이 거래되었으며, 사상이 교류하고 수용되고 다듬어졌다. 이 길은 변형뿐만 아니라 죽음과 폭력, 질병과 재앙도 실어 날랐다.”

바로 ‘실크로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붉은 남작’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펜의 삼촌인 저명한 독일 지질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에 의해 명명됐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실크로드는 중국 내륙과 타라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단황을 연결하는 900km 길이의 통로였다. 기원전 119년 한(漢) 왕조가 대륙 횡단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이곳은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당시 팽창을 거듭하던 중국은 바깥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교역이 늘어나면서 비단이 중요하게 거래됐다. 물론 시대에 따라 중요 품목이 달라졌다. 실크로드를 따라 순례자와 전사, 유목민과 장사꾼이 드나들면서 이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세계 중추신경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주장했다.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를 연결하고 협동을 도모하도록 초점을 둔 것이다. 이 구상은 육지 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一帶)과 해상 기반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一路)의 결합이었다.



실크로드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물, 천연 장벽이 있다. 사진은 서부 중국 신장의 타라라마칸 사막. (책과 함께 제공)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의 한 축으로 부상한 G2시대, 오랜 기간 세계 중추신경제를 담당했던 실크로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가인 영국 피터 프랭코판이 펴낸 ‘실크로드 세계사’(silk Roads)는 2000년 세계사를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으로 읽는다.

사실 실크로드는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서구중심의 관점 때문이었다. 오리엔탈리즘이라 불리는 편견 외에도 서구 역사의 주변부로 인식되었다. “고대 제국에서 G2 시대까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서유럽의 승리’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해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에 포커스를 맞춘다.

1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다루는 내용이 광대하다. 고대 상업제국 페르시아, 로마제국 이야기부터 초기 불교·기독교·이슬람교 등 고대 종교의 생성과 확산까지 아우른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왕조의 탄생, 십자군 전쟁, 징기스칸 세계 정복과 페스트의

발병, 콜럼버스 이후의 서유럽 시대도 관통한다.

그러나 근현대사를 전체 분량의 30% 넘게 수록해 실크로드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한다(“옛날 이야기”쯤으로 치부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변별된다). 근현대의 실크로드 핵심 이슈는 단연코 ‘자원’이다. 1차 대전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 일대 자원을 독점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였다.

현재도 송유관과 가스관이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로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으로 이곳에선 종교 문제, 러시아와 주변국간 그리고 중국과 인접지역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역의 ‘화약고’인 동시에 모든 세계가 만나고 역사가 흐르는 곳이기도 하다.

2010년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이를 예견한다. “세계는 서방에서 동방으로의 권력 이동 등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책과 함께 5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국가란



내가 나라다
김상봉 지음

비상식적 국가 운영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을 우리는 지난 2016년부터 몸서리치게 피부로 느꼈다.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는 새로운 희망의 연대로 승화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렇게 자문했다. “이게 나라냐”고. 이 말에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전제가 담겨 있다.

세월호 이후, 단순한 비판과 부정이 아닌 새롭게 형성해야 할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묻는 책이 출간됐다.

철학자인 김상봉 전남대 교수가 펴낸 ‘내가 나라다’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국가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철학’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책은 특히 젊은 세대에 게 던지는 소중한 화두와 나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책은 ‘대담’ 형식을 갖추되 가장 대담으로 여겨져 있어 가독성이 높다.

1부에서는 40대 이상을 대화 상대로 설정해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국가’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했다. 2부와 3부에서는 20~30대를 대화의 상대자로 삼아 앞으로 형성해야 할 국가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한다.

〈길·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 영화의 수도 뉴욕 여행설명서



영화, 뉴욕을 찍다
박용민 지음

‘대부’, ‘택시 드라이버’, ‘사랑과 영혼’, ‘레옹’, ‘존 말코비치 되기’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것이다. 뉴욕이 영화의 배경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잡들지 않는 도시, 세계 영화의 수도

뉴욕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현직 외교관이자 영화팬인 박용민 씨가 펴낸 ‘영화, 뉴욕을 찍다’는 영화 팬을 위한 뉴욕 여행설명서이자 뉴욕 여행자를 위한 영화 설명서다.

뉴욕을 흔히 미술의 도시, 건축의 도시라 하지만 저자는 영화의 도시라고 주장한다. ‘가장 미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책에는 국내 개봉작을 포함 모두 273편의 영화가 소개돼 있다.

〈헤이북스·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언가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상실 이후의 삶



오직 두 사람
김영하 지음

작가 김영하가 ‘무슨 일이 일어났지는 아무도’ 이후 7년 만에 신작 소설집을 들고 돌아왔다. 스타일리스트 김영하는 그동안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해온 작가다.

‘오직 두 사람’에는 제9회 김유정문학

상 수상작 ‘아이들 찾습니다’, 제36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옥수수’와 ‘나’를 포함해 모두 일곱 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소설은 모두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상실 이후의 삶’을 사는 이들의 이야기다. 각자도생하는 하루하루는 외적 관계뿐 아니라 내면마저 파괴시킨다.

표제작 ‘두 사람’은 특별한 부녀자 등장한다. 딸은 아버지에게 맞추어준 삶을 살고, 아버지는 평생 딸을 기이한 방식으로 용아맨다. 가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지만 딸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 믿는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

광주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